

전치사 + 관계대명사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입니다.

of which, in which, upon which, within which, of whom.... 이런거죠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라 가슴에 잘 와 닿지 않는 표현인데요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문을 들어볼까요?

Note taking is one of the activities **by which** students attempts to stay attentive, but it is also an aid to memory [전국연합]

- ▶ 노트필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하나임.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집중할 상태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거임. 또 그 뿐만 아니라 (수업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거임.
-

제가 직접 작성한 지문으로 하나 더 연습해보도록 합시다.

Some deny the need of aiding children in the third-world countries insisting that helping those in our community be the first priority. It sounds somewhat 'merciful' or 'considerate'. Their statement is, however, mere a shield **behind which** they attempt to hide from arrows of criticism that reveals their indifference about the matter pretending they are at least concerned about 'our children'. Yes, there are many children we have to care with warm heart. But the problems they suffer from are rarely matters of surviving. As I know, No child in this country dies of any of followings; malnutrition, malaria, drinking polluted water, AIDS, etc.

- ▶ 어떤 사람들은 제 3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요. 뭐라 그러면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먼저 돕지” 이러면서,, 이 주장은 뭔가 자비롭게 들리기도 하고(우리나라의 아이들을 걱정하긴 하는거니까) 사려깊은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근데 이 주장은 그건 그냥 방패에 지나지 않는거임. **무슨 방패냐면 그 뒤에 숨어서** 그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거라구요... 자신들이 (아동 복지에 완전 무관심한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나라 아이들’ 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걸 슬쩍 내비치면서.. 물론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돌봐야할 아이들이 많이 있긴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고통받는 문제들이 죽고사는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대구요. 내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 중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명을 잃는 아이는 단 한명도 없을걸요? ; 영양실조, 말라리아, 오염된 물 마시기, 에이즈...
-

We will continue our study of the annelid by focusing on some of its internal details, **many of which** we have not seen in the animals we've studied thus far. Continue reading and coloring the structures as you encounter them. You should use lighter colors for the next parts because some of them are small.

[미국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中]

- 계속해서 환형동물의 내부 구조(장기)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것들 중 대다수는(,many of which)
- ▶ 우리가 지금까지 (we've studied thus far) 공부했던 동물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나머지 해석은 생략 :)

간혹 문법책을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of which = whose, in which=where 이렇게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을 관계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맨 뒤로 보내면 된다.

맞는 설명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의 참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안'을 의미하는 in which 말고 "완전 깊숙이"의 의미가 있는 inside which, '지금 막 들어오는 상태'의 이미지인 'into which' 이런 걸 한 낱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관계부사는 영어에 없죠!! 이런 '뒤안스'를 표현하려고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이 생긴거예요.

Boarding Schools allow students a safe space in which to exert greater control and independence over their daily lives.

이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겹칩거예요

The hearth is central to the yurt, above which hangs a metal cauldron.

[2011 수능완성 유형편 p81 #9]

- ▶ 난로는 유르트 중심에 있어요, 근데 그 위에는 금속으로 된 가마솥이 매달려 있어요.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이 대부분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이 문장을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해석할 때 살짝 당황했어요. above which a metal cauldron is hanged. 이렇게 쓰는게 좀 더 해석이 와닿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할 뿐이지 공공이 의미를 곱씹어보면 잘 이해됩니다.

뜻밖의 문법 특강 1 : Whom

이번에는 전치사 뒤에 whom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시다. 이 부분이 관계사, 의문사, 접속사, 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는데 고생했습니다. 먼저 whom 이 뭘지, 목적격은 뭐고 주격은 뭘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whom do you love? 에서 [알고 싶은 것=whom]

You love whom. 이렇게 고치면 [알고 싶은 것=you 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누구'가 구체적인 대상 즉 '대명사' 이자 또 동시에 의문사고, 그게 또 형서문처럼 바꾼 문장에서 동사 love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 인거예요. 목적격은 주격으로 쓰는 who 와 구별하기 위해서 whom 으로 쓰기로 약속한거구요.. 그러니까 의문사, 대명사, 관계사 이 세 가지가 그냥 한 가족인거예요. 이게 괜히 이름을 붙여놔서 더 헷갈린다니까요.

who is he? 에서도 마찬가지로 [알고싶은 것 = who'누구']

he is who. 이렇게 고치면 그 '누구'가 '주격 보어'가 되죠. 그래서 '주격'인 who를 쓰는거예요.

is도 동산데 who가 목적어 아니냐!! 라고 질문할 수 있을텐데요.. 일반동사와 be동사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죠!!

he is my daddy.에서 daddy 는 '주격보어' 라고 합니다. 주어+동사+주격 보어+주격 보어가 곧 주어인 상태 인거죠.. (주어=주격보어)....

전치사 뒤에 오는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입니다. 즉 "명사"라구요,, 그 자체로 목적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에서 관계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적격인 whom을 쓸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과 혼동하면 안돼요!!

She is the girl whom I used to love.

This is the boy whom we ran over yesterday night in the mall.

여기서는 각각 동사 love, ran over 의 목적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을 쓸거예요.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와야 하는거 아님?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어떻게 된건지 아시겠죠? :)

예문들을 봅시다.

orbi재수학원 has around 500 students many of whom got a high score on last year's 수능. [지점 작문한 문장 ㅋㅋ]

- ▶ ‘오르비 재수학원에는 대략 5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중의 많은 학생들이 작년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Since July 1966, the Abbey has been located at 26 Lower Abbey Street, Dublin. In its early years, the theatr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writers of the Irish Literary Revival, **many of whom** involved in its founding. The Abbey served as a nursery for many of the leading Irish playwrights and actors of the 20th century, including William Butler, Yeats, Sean O'Casey and John Millington Synge. [2012 종로학원 핵심체크 13회 #1]

병렬구조

and, but, 등의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모양 그리고 그 전후의 구조가 똑같아야해!

중학교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이죠, 이 내용을 모르는 수험생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하지만 지문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병렬구조의 중심점이 되는 곳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구조적으로만 접근해서 어법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독해할 때에 병렬구조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면 독해 속도와 정확도 모두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 주제에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문들을 나열하고 각 예문들마다 병렬구조가 적용된 것인지 표시해두었습니다.

By placing us outside ourselves, travel provides us with the distance required to see what it is we are habitually doing and the anonymity to risk new ways of being in the world. [2010 종로학원 핵심체크 7회 #11]

가주어-진주어 / 가목적어-진목적어 / 후치수식

provides us with the distance required to see what it is [that] we are habitually doing **and** the anonymity to risk new ways of being in the world.

A way to get things done more efficiently and get better results is to do the right thing at the right time of day. [11학년도 6평 #22]

익숙한 어휘 생소한 의미.

독해를 하다보면 분명 아는 단어인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뜻과 다르게 쓰인 경우이죠.

From a consumer's perspective, walking away from a shop empty handed does not fully express the detailed character of specific dissatisfactions; nor can non-purchase communicate any sense of what this or that consumer might have been prepared to pay for. If all we know or are concerned about in our relationship to a product is the price, then 'choice' becomes a perfunctory act.

[2011 교독점 330제 #55]

저는 이 지문을 읽을 때 communicate 가 나오길 보고 ‘~와 소통하다’ 라는 의미로만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치사 with와 함께 쓰일 때만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 글에선 그런 의미로 쓰인게 아니라 타동사로서 지시, 정보 등을 ‘전달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해석이 완전히 꼬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어휘가 익숙하지 않은 뜻으로 사용될 경우 해석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로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가 타동사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쓰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의 동사가 같은 어법으로 쓰이는데도 다른 뜻을 지니는 경우도 있구요 아예 어법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레마를 가지고 공부해보겠습니다.

According to Immanuel Kant, the moral worth of an action consists not in the consequences that flow from it, but in the intention from which the act is done.

[2011 수능완성 p84 #9]

consist of 만 알고 있어서 consist in 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People in different cultures have very different traditions regarding family meals. Still, it seems safe to say that the ideal purpose of family dinners, which is not always realized, is to enjoy and to enhance family relationship.

[2011 교독점 330제 #44]

동사 realize를 “notice” 알아차리다 라는 뜻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이 문장의 의미를 정말 파악하기 힘듭니다. make something really occur 이런 뜻으로, ‘실현시키다’ ‘실천시키다’ 정도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regarding이 ~에 관하여 라는 뜻의 전치사라는거 놓치면 안되구요.

How you eat may have as much bearing on your health and your weight as what you eat. This may well be the deeper lesson of the so-called French paradox: the mystery (at least to nutritionists) of a population that eats all sorts of supposedly lethal fatty foods, and washes them down with red wine, but which is nevertheless healthier, slimmer, and slightly longer lived than we American people are. [2011 수능완성 유형편 p80 #7]

have bearing on ~ : ~와 관련이 있다

어순의 배열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독해할 때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말 표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읽어나가는 동시에 영어의 어순에 맞게 직독직해 해야한다는 걸 모든 수험생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게 힘든 이유가 바로 '우리 말스러운' 순서로 배열되어있기를 예상하면서 읽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십수년간 한국어를 써오면서 굳어진 사고방식을 살짝 깨주면 독해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 책에 나오 문장들은 저와 제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문장들입니다. 이 책에 나오 문장들을 반복해서 눈으로 읽는 훈련을 하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절대 소리내서 읽지 마세요, 속발을 습관이 생기면 정말 힘듭니다 TTTT 제가 그랬어요)

이번 단원에서는 각종 도치, 목적어의 위치 변화, 여러 유형의 삽입형태(부사구, comma-comma 사이의 표현) 등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게 배열된 문장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This is not a good excuse, because by the same rule he may go through any house in Edinburgh, and do what he thinks proper to be done without the owner's consent." [2011 수능특강 p14 #6]

이건 들어줄 만한 변명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똑같은 방법으라면 저 사람은 에딘버러에 있는 아무 집에
▶ 나 들어가서는 저 사람이 생각하기에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주인과의 합의도 없이 막 해버릴 것이기 때문
이예요!

부사구 by the same rule 가 because 바로 뒤에 나와서 해석의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because 뒤에 곧바로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예상이 빗나
가게 되어서 순간적으로 독해 속도가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전명구를 비롯한 부사 표현이 항상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합니다.

It's easy to see plagiarism when a student hands in a paper written by someone else. In fact, that student is submitting as his or her own someone else's intellectual property. [2011 수능완성 실전편 1회 #46]

that student is submitting someone else's intellectual property as his or her own. 이라고 쓰여있었다면 해석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쉬운 문장에서는 부사어가 맨 마지막에 붙
려있었지 이렇게 중간에 튀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예요. 한국어에서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사실 남의 지적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 학생은 사실 자신의 것으로서 남의 지적 재산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건 뭔가 어색하죠..

We can assume that in interacting with patients, friendly doctors are more likely than dominant doctors to take into account the view, feelings, and expectations the patients have about themselves, their illnesses, and their doctors. [2011 수능완성 유형편 p.33 #4]

friendly doctors are more likely to take into account the view, feelings, (중략) and their doctors than dominant doctors. 인데 동사 take into account 의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비교대상을 목적어 앞에 쓴 것입니다.

Although today, child welfare service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our schools often provide care to children in need, none of these institutions has as its first priority the delivery of mental health care. [2011수능완성 유형편 p.41 #4]

의미상 한 박자 쉬는 부분; 화제를 여는 문장(부사절), 해결하는 문장 구별하기(완전한문장)

점속사 Although 를 보는 순간 “무엇이 이려저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가지는 “화제를 여는 문장”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잘 안보이고 comma comma 가 보이죠? Although 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일어나야할 과정을 잘 거쳤다면 복잡하게 나열된 낱말들에서 뼈대를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child welfare service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our schools 이만큼 전체가 Although 가 이끄는 “여는 문장”의 주어라는데 보이시나요? 그 뒤에 나오는 provide 가 동사입니다. 이어서 in need, 이렇게 여는 문장이 끝나게 되구요 공이어 나오는 none of these~ 여기가 달는 문장인 것이죠. 그것에 달는 문장 안에서 또 어순의 배열이 낫서네요. none of these institutions has the delivery of mental health care (as its first priority). 이렇게 동사 has 와 목적어 the delivery~ 사이에 as로 시작하는 전명구가 끼어들어가 있어서 독해의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동사 뒤에 곧바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상당어구가 나오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전명구를 비롯한 부사 표현이 목적어의 앞으로 당겨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떠올려야합니다. 물론 자동사와 전치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가 쓰인 경우와 혼동하면 안되죠!!

Fundamental Science is where new ideas and methods begin that later becomes commonplace. [2010년 종로 핵심체크 21회 #2]

관계대명사 that 절이 선행사 new ideas and methods 바로 뒤에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Fundamental Science is where new ideas and methods that later becomes commonplace begins.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You might think that with such extreme variations in habitat, fishes would be difficult to characterize. [미국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that 다음에 갑자기 with가 나와서 당황했던 문장입니다.

전명구 with such extreme variations in habitat 가 한꺼번에 앞으로 나오 겁니다.

In the Turkish language we have a special tense that allows us to distinguish hearsay from what we've seen with our own eyes; when we are relating past events we could not have witnessed, we use this tense. It is a useful distinction to make as we remember our earliest life experiences reported by our parents, stories to which we listen with the same rapt attention we might pay to some brilliant tale of some other person. [2011 수능특강 p201 #3]

수능특강에서 제일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셋째 줄 It is부터 볼까요?

make 다음에 as가 이끄는 부사절이 나와서 완전 당황했습니다. as가 절을 이끌면서 등장하면 문맥에 맞게 ‘~할 때’, ‘~인 것과 같이,.’ 이런 뜻으로 해석된다는 걸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by our parents, 까지가 부사절이 되구요 그 뒤에 나오는 stories 부터가 make의 목적어가 됩니다. 근데 그 stories를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을 써서 추가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as the urban middle class grew in size, middle-class families began to regard their children less as objects of utility and more as emerging people who enhance their parents' sense of self. Most mothers today give as their primary reason for wanting children their own need for love and companionship. [2011 수능완성 유형편 p65 #6]

Most로 시작하는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as their primary reason for wanting children 이만큼이 한 덩어리로 보이시나요?

‘오늘날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녀를 원하는 primary한 이유로서 give 한대요. 뭘 give 하냐면 need for love and companionship.

아이를 원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서 'need for love and companionship'을 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If you have lots of energy early in the morning, that is when you should schedule difficult activities, whether for you these are brainstorming, writing, or practicing. [2011학년도 6월 평가원 #22]

whether 다음에 나오 의미상의 주어 for you 때문에 가볍게 훑기! 했던 문장입니다. whether these are brainstorming, writing, or practicing for you. 이렇게 쓰였다면 훨씬 해석하기 수월했을 것입니다.

Artificial as this process is, this is what becomes our 'identity' an identity [grounded/grounding] on all the superficial differences we distinguish between ourselves and others. [2009학년도 9월 평가원]

as this process is artificial,, 인데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If we are made to live in a small cottage and bend to the rule of an aristocrat occupying a castle, and yet we observe that our equals all live exactly as we do, then our condition will seem normal. If, however, we have a pleasant home and a comfortable job but learn through attendance at a school reunion that some of our old friends now reside in houses grander than ours and have more enticing occupations, we are likely to return home lamenting misfortune.

[2011 수능특강 p91 #3]

의미상 한 박자 쉬어가야 하는 곳에 comma(,)가 없다!

영어로 쓰여진 글에서 한 박자 쉬어가야 하는 곳에는 필자의 재량껏 comma를 써서 심리적으로? 한 박자 천천히 쉬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comma를 붙이는 것은 말 그대로 “필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안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박자 쉴 곳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주욱 읽어가다보면 문장의 구조를 완전히 놓쳐서 의미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In early human history, life was short, and in order to reproduce the human group many children had to be born. [2011 EBS 영어독해연습 II p.8]

부사구 표현

의미상 한번 쉬어가야 하는 곳을 in order to reproduce the human group ", " 여기입니다. 부사구가 끝나는 부분이죠.

한 박자 쉬어가야 하는 곳의 대부분이 부사절이나 부사구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부사절을 화제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할 때, ~를 위해서, ~한다면, 등등,,, 이렇게 화제가 열린 후에는 ~이다, ~해야한다. ~한다,,,, 이런 완전한 문장으로 해결이 되어야합니다.

위의 문장에서는 in order to 가 이끄는 부사절이 화제를 여는 역할을 한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주절 many children had to be born. 이 열린 화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화제를 여는 부사구/절 뒤에 곧바로 해결문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사, 의문사 등을 통해 문장이 계속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고 위의 문장을 읽을 때 the human group (where) many children had to be born ", " [해결문장]. 이런 구조로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제가 실제로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도 그 위에 해결문장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many children~이 관계대명사 where 가 생략된 또다른 수식어가 아니라 해결문장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엄청 복잡한 것 같지만 위의 사고과정을 정말 0.5초도 안되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해낸 판단입니다.

다른 예를 볼까요?

Yet of the three factors environmentalists often point to as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 population, technology, and consumption - consumption seems to get the least attention. [2010 종로 핵심체크 7월 #2]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놓치면 안되는 표현, 자동사+전치사

- 이진 앞에서 언급한 three factors 를 의미합니다. 인구, 기술, 소비 이렇게 세 개가 바로 세 가지 요인들이 라네요.

- population, technology, and consumption - ", " 여기가 바로 의미상 한 박자 쉬어가야 할 부분인거 아 시겠나요? 여기까지가 '~중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화제를 여는 부사절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 뒤에 해결문장 이 오게 되죠.

Of 가 “~의” 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면 곧바로 “~중에서” 로 해석해봐!!

among 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of 앞에 “무엇무엇의 무엇”에서 뒤의 ‘무엇’ 에 해당될 명사 상당어구가 없는 경 우이죠. 위의 문장처럼 미묘한 뜻을 전달하는 yet 과 같은 부사만 있거나 문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예문입니다.

Of all the EBS radio shows, **임이 트이는 영어** is specially geared towards helping listeners speak English better. [EBS 라디오 ‘임이 트이는 영어’ 본문]

주격관계대명사는 반드시 be 동사와 함께 생각된다!

consumption (which) seems to get the least attention. 이렇게 which 가 생각된다고 착각해서 “가장 적게 관심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consumption,,” 이렇게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진짜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건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완전 어처구니없는 실수이지만 가끔 이 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서 attention. 으로 문장이 다 끝나기 때문에 저렇게 주절이 아닌 또다른 수식절 로 생각하는게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주격 관계대명사 혼자서 달랑 생각되는건 있을 수 없거든요..

여기서는 진짜 동사 seems 가 현재시제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기 어렵지만 과거시제인 경우 진짜 동사가 아 니라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각된 과거 분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기타 등등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은 딱히 어느 항목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들이라서 이렇게 따로 한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왜지 그냥 해석이 잘 안될 문장들을 담았습니다.

Unlike the modern society, the primitive society has less specialized knowledge to transmit, and since its way of life is enacted before the eyes of all, it has no need to create a separate institution of education such as the school. Instead, the child acquires the heritage of his culture by observing and imitating adults in such activities as rituals, hunts, festivals, cultivation, and harvesting. As a result, there is little or none of that alienation of young from old so marked in modern industrial societies. A further reason for this alienation in modern adult owes less to his direct experience and more to the experience of his culture than does primitive man. [2011학년도 수능 #44]

저는 이 지문을 읽으면서 중간에 밑줄 친 that 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관계대명사인가? 동격의 that 접속사인가?...

그게 아니고 단순히 우리말에서 "그런" 내지는 "그와 같은" 에 해당하는 지시형용사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his도 one's 로 쓰였다면 비인칭 주어라는걸 확실하게 알아줬을텐데 his로 써서 잠깐 당황했습니다. it, one 외 에 남성대명사 he도 비인칭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ver since I became a Christian I have thought that the best, perhaps the only, service I could do for my unbelieving neighbours was to explain and defend the belief that has been common to nearly all Christians at all times.

[Mere Christianity(순전한 기독교) - C.S Lewis]

내가 크리스천이 된 다음부터요,, 이런 생각을 꼭 해 왔어요.

- ▶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 (어쩌면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 믿음을 설명해주고 변증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믿음은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항상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었어요.

Good poetry is one that moves our hearts to sympathize with the emotions of the poet himself or with those of the persons whom his imagination has created.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이후에 I 가 주어로 나오는 문장들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해석의 흐름이 살짝 끊겼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She is the girl whom I used to love 이런 초급 문장과 뭔가 다르죠.. whom 이 이끄는 절의 주어가 his imagination 이 됩니다. 꼭 '작가의 상상력' 인거죠.

In the network economy, both physical and intellectual property are more likely to be accessed by business rather than exchanged. Ownership of physical capital, however, once the heart of the industrial way of life, becomes increasingly marginal to the economic process. It is more likely to be regarded by companies as a mere expense of operation rather than an asset, and something to borrow rather than to own [후략] [2011수능완성 유형편 p84 #7]

전 진짜 이 지문 해석 제대로 못했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physical capital, economic process, expense of operation,,, 이걸게 바로 collocation 인데요 비문학 경제관련 지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휘비용, 뭐 이걸거 비슷한거요..

이걸 미리 그냥 박서 눈에 익게만 하더라도 앞뒤 맥락을 통해서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는 글인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Weather and climate catastrophe of all sorts are claimed to be the inevitable result of global warming, and global warming is uniquely associated with man's activities. The reality of the threat of global warming is frequently **attested to by reference to** a scientific consensus. [2011 수능특강 p233 #27]

I wonder if you could say a word or two to them about how delicate new sod is. [2011 수능특강 p202 #1]

a word or two : 한 두마디 좀 해주십사..

이번 장은 어휘편입니다. 단어 많이 외워야 해요 ^_^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60점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던 E사에서 출판한 W*** M*****라는 단어집을 사서 한 달 동안 계속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외국어 영역이 항상 4등급에 머물렀었는데 다음번에 보 모의고사에서 2등급,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으로 점수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르지만 단어만 잘 암기해도 독해 실력이 월등히 상승한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단어를 효율적이고 실제 독해에 도움이 되도록 암기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어 마인드맵’인데요 표제어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제어를 중심으로 마치 마인드맵을 그려가듯이 유의어, 반의어, 혼동되는 어휘, 왜지 느낌이 비슷한 어휘 등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아래는 제가 실제로 했던 과정입니다.

아 힘들다 누가 날 좀 위로해줬으면 좋을텐데. 위로? comfort? 같은 단어는 뭐가 있었지??? 아.. 동사형래는 기억 안나고 명사형만 기억하는데 consolation?? 동사형이,,, 아 그래 console 이었던거 같네.. 사전 찾아보니까 맞는거 같다.. 근데 consolidate라는 동사도 있었는데 그건 무슨 뜻이지?? ‘결합하다’, ‘통합하다’라는 뜻이구나,, 아 잠깐 지금 ‘위로하다’, ‘달래다’ 류 어휘를 떠올리고 있었지... 또 뭐가 있나?? mitigate 있었는데,, 이전 위로하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완화시키다, 달래다 이런 뜻이네.. 유의어는 뭐가 있나? alleviate 가 있구나! soothe 도 있고,,, seethe 라는 단어도 어디서 들어보거같은데?? 우왕와왕 아 맞다 그리고 ‘달래다’, ‘완화시키다’ 라는 뜻을 보니까 ‘순한’ 이라는 뜻을 가지는 suave가 떠오르네?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둬야지

-_-;;; 대박 오그라드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영사전도 활용하면서 능동적으로 외워야합니다. 요새 수능에 진짜 별의 별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완전 처음 보고 절대 수능에 안 나올거 같은 단어도 외우셔야합니다...

단어를 외울 때

1. 유의어 및 반의어
2. 그 뜻과 왜지 어울리는 단어 (예를 들면 아까 위에서 ‘위로하다’에서 ‘완화시키다’, ‘순한’ 까지 이어진것처럼요..)
3. 사전 찾아보다가 왜지 맘에 드는 모르는 단어 (그 단어랑 사전 상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거니까 철자가 비슷한 단어일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하나의 삼각처럼 기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드 예들 몇 가지 더 소개합니다.

표제어
동/유의어/반의어
비슷한 류(流)의 단어
왁지 혼동되는 단어

이게 기본 틀(frame)입니다.

delay
put off
procrastinate
defer
adjourn
punctual
deny
delicate
deliberate
deliver
deligate
deligation

comfort
console
mitigate
alleviate
soothe
seethe
suave
mild
confront
convert

tangible
tactual
accéssible
haptic(al)
sensory
tactic
tactful

palpitate
throb
vitalize
restore
robust
vigorous
masculine
palatable

mutate
mutation
mutilate
emulate

conventional
traditional
custom
stereotyped

apprehend 영려/걱정하다, 체포하다
apprehension 영려/불안, 체포
afraid
appraise
apprentice
acclaim
proclaim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길고 어둔 터널을 홀로 지나는 밤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살아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길 바른길 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요 명확하고 만져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면
 멈춰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면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한 음성 들을 수 있을 거야

동행 - 함부영(Markers)